박태환 오늘 '몸풀기' 레이스

수영(경영)

자유형 400m 예선 중국 장린과 맞대결 예선통과 무난할 듯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중국의 장거리 강자 장린(21)과 맞붙는다.

8일 낮 발표된 자유형 400m 예선 스타트 리스트에 따르면 박태환은 전체 5개 조 가운데 3조 4번 레인에 배정됐다. 경기는 한국시각으로 9일 밤 8시 28분이다.

스타트 리스트는 올해 세계랭킹에 따라 정해졌다. 랭킹 1위인 그랜트 해켓(호주)이 가장 마지막에 경기를 치르는 5조 4번 레인, 랭킹 2위 라슨 젠슨(미국)이 4조 4번 레인에서 뛰게 됐고 랭킹 3위 박태환이 3조에서 헤엄치게 됐다.

다음 순위부터는 다시 5조로 올라가 5번 레인에서 뛰게 된다. 즉 4위 피터 밴더케이가 해켓의 바로 옆인 5조 5번 레인에서 경쟁하게 되며, 우사마 멜룰리(튀니지)가 4조 5번 레인을 받았다.

박태환의 옆에서 뛰는 선수는 바로 장린. 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올해 랭킹 6위다. 한때 라이벌이었던 장린은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에게 3관왕을 내주며 뒤로 밀렸고, 2007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는 예선 통과에 실패해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다.

장린은 올림픽을 앞두고 기량이 급성장했다는 평가다. 해켓의 옛 스승이던 데니스 코터렐을 코치로 영입하며 기록단축을 거듭하더니 지난 3월에는 박태환의 최고기록 3분43초59보다 1초 가량 뒤진 3분44초97을 찍었다.

하지만 박태환이 장린에게 질 리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나중에 경기를 치르는 2개 조에 강자들이 몰려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점.

박태환은 먼저 경기를 치른 뒤 다른 선수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데다 결승에서 상대 선수가 가르는 물살의 영향을 조금이나마 피하려면 수영장 가운데인 3번 레인부터 5번 레인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한다. 즉 예선을 3위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올림픽 개인 최다 8관왕을 노리는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개인혼영 400m 예선 4개 조 가운데 마지막인 4조 4번 레인에 배정돼 금메달 수확에 나선다.

여자 접영 100m 예선에서는 호주의 '단거리 여제' 리비 트리켓이 7조 4번레인에서 금빛 레이스를 출발하며, 여자 개인혼영 400m 예선에서도 케이티 호프(미국), 스테파니 라이스(호주) 등 강자들의 경합이 시작된다.

박태환 이외의 한국 선수의 출전도 예정돼 있다. 최혜라(서울체고)가 접영 100m 예선 2조 5번 레인을 배정받았고, 4년 전 아테네 대회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결승 진출을 이룬 남유선(강원도청)은 개인혼영 400m 예선 1조 3번 레인에서 헤엄친다. /연합뉴스

신영록-박주영 투톱

'빗장수비' 뚫는다

박성화호 내일 伊 상대 총력전 카메룬과 1차전 아쉬운 무승부

축구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0일 밤 8시45분(이하 한국시각) 중국 친황다오 올림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아주리군단' 이탈리아와 2008 베이징올림픽 조별리그 D조 2차전을 치른다.

남자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한 한국으로서는 1차 관문인 조별리그 통과의 윤곽이 드러날 피할 수 없는 한 판이다. 1936년 베를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탈리아는 이번이 16번째 올림픽 무대인 전통의 강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의 이탈리아(한국 53위)와 올림픽대표팀 간 맞대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1996년 애틀랜타대회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나 한국이 1-2로 졌다.

한국은 카메룬과 1차전에서 박주영(서울)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고도 막판 뼈아픈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기는 바람에 승점을 나눠 가졌다. 반면 이탈리아는 온두라스와 첫 판에서 매서운 공격력과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3-0 완승을 거둬 조 1위 후보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한국이 이탈리아에 패하면 남은 온두라스전을 이긴다 해도 승점 4밖에 되지 않아 불안하다. 이탈리아는 한국을 꺾을 경우 남은 카메룬전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는 확보, 일찌감치 8강행을 결정짓는다.

한국으로서는 이런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에 일단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메룬과 혈전에서 체력이 바닥난 만큼 박 감독은 이탈리아전 선발 라인업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의 변화를 주긴 어렵다.

이탈리아전에는 4-4-2 포메이션에서 박주영〈사진 오른쪽〉의 최전방 투톱 파트너로 신영록(수원·왼쪽)이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신영록은 카메룬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체력 소모가 적었고, 유럽 선수들과 상대해도 결코 힘에서 밀리지 않는다.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정우(성남)-기성용(서울)이 다시 짝을 이루고, 우측 미드필더는 변함없이 이청용(서울)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왼쪽 미드필더의 경우 1차전과 달리 백지훈(수원) 대신 오른쪽 갈비뼈 사이 연골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김승용(광주)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 미드필더도 기존 멤버의 체력 회복 여부에 따라 오장은(울산)이 먼저 나설 수 있다.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동진(제니트)-김진규(서울)-강민수-신광훈(이상 전북)으로 구성한다. 골문은 정성룡(성남)이 지킨다.

/연합뉴스

양궁

한국 금 목표 10개 중 4개 양궁이 맡는다

남녀 개인·단체전 싹쓸이 각오

'한국 금메달 목표 10개 중 4개는 양궁이 맡는다'

양궁 대표팀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그린 양궁장에서 열리는 여자 단체전 8강을 시작으로 이 종목 개인·단체전에 걸린 금메달 4개 싹쓸이에 나선다.

9일 오후로 예정된 랭킹 라운드에서 12개 팀 중 5위 이하로 떨어지면 16강전을 거쳐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70m 거리에서 1인당 72발씩 3명이 쏜 점수를 기준으로 개인전과 단체전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하는 랭킹 라운드에서 한국이 중하위권으로 떨어질 확률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랭킹라운드를 1위나 2위로 통과하면 10일 낮 12시께 8, 9위간 승자나 7, 10위간 승자와 8강전을 치르게 된다. 4엔드 6발씩 24발을 쏘는 단체전에선 주현정(26·현대모비스)-윤옥희(23·예천군청)-박성현(25·전북도청) 순으로 나선다.

성격 좋은 맏언니 주현정은 국제 경험은 적지만 과감하게 활을 쏘는 게 장점이다. 구자청 여자대표팀 코치는 "주현정의 컨디션에 따라 대표팀 성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옥희는 올림픽 대표로 선정된 이래 기량이 급성장했고, 박성현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중국과 결승에서 마지막 화살을 10점 과녁에 꽂아넣으며 241-240(당시 270점 만점), 1점차 우승을 확정한 저력이 든든하다.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도입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한 번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다른 나라에 양보한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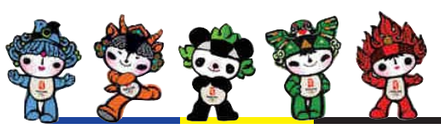
한국의 6연패 행진을 저지할 수 있는 라이벌로는 중국, 대만, 영국, 폴란드 등이 있다.

홈 어드밴티지를 안은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맞수로 꼽히지만 다행인 건 올해 2차 월드컵 준결승에서 우승한 걸 제외하고는 그리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테네 멤버인 장 쥐안쥐안(27)이 그대로 출전하는 가운데 새로 나온 궈단(23)의 컨디션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4강이나 결승전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아테네 동메달에 그친 대만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베이징 선전을 예고했다. 아테네 개인전 동메달리스트 앨리슨 윌리엄슨(36)이 이끄는 영국, 유럽 챔피언 유스티냐 모스피넥(25)을 앞세운 폴란드도 복병으로 꼽힌다.

9일 함께 랭킹라운드를 치르는 남자 대표팀은 다음날인 11일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한다. 남자 대표팀은 1988년 금메달을 수확한 뒤 2000년과 2004년 정상에 복귀하며 체면을 지켰다.

단체전에 이어 12~13일 64강, 32강전을 거쳐 14일에는 여자 개인전 금메달, 15일 남자 개인전 금메달이 각각 결정된다.



올림픽 소식

장미란 첫 적응훈련 시작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강력한 금메달리스트 후보로 꼽히는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이 8일 베이징 현지에서 첫 적응 훈련을 시작.

이날 오전 흰색 반소매 셔츠에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역도 트레이닝 홀에 나타난 장미란은 남녀 역도대표 8명과 함께 출입문에서 가장 먼 거리의 트레이닝 홀 모서리 지역에서 역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

장미란은 이어 지난 7일 강력한 라이벌 무솽솽(24·중국)의 불참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나오든 안 나오든 내 목표와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무덤덤한 표정.

왼쪽다리 없는 女선수 남아공 기수

○…왼쪽 다리가 없는 장애를 극복하고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따내 '인간승리' 드라마를 연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자 수영대표팀의 나탈리 뒤 투아(24)가 선수단 기수로 입장.

하제라 카지 남아공 선수단장은 8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들이 모두 뒤 투아를 기수로 뽑자는데 동감했다"며 "남아공 선수단을 위한 확실한 선택"이라고 설명.

여자 마라톤 수영 10㎞에 도전하는 뒤 투아는 7년 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지만 수영으로 장애를 극복해 당당히 베이징 무대에 나서면서 전 세계 스포츠팬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주인공.